

시지정 무형민속문화재

헤이세이 9(1997)년 4 월 24 일 지정

전승자: 나카노키초카이

나카노키의 쓰지키리

쓰지키리란 마을 경계의 '사거리(쓰지)'를 '끊는다(키루)'는 뜻으로, 악령이나 악성유행병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이곳 나카노키에서는 매년 초오(2월 첫 오의 날)에 열립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나카노키의 농가와 구 농가입니다. 쓰지키리에 사용되는 이무기는 동서 2 조로 나뉘어 1 마리씩 제작합니다. 동쪽이 암컷, 서쪽이 수컷이라고 합니다. 재료는 머리와 몸체를 만드는 짚, 이무기의 꼬리를 만드는 떡갈나무 막대기, 눈알을 만드는 갱지, 분말향, 먹물, 머리와 몸체에 붙이는 호랑가시나무, 삼나무 잎, 떡갈나무 잔가지, 조릿대 등입니다. 갱지는 부적과 구지(먹으로 가로세로 여러 선을 그은 것)에도 쓰입니다. 이것은 당번(연번)이 준비합니다. 또한 각 집의 문 등에 거는 짚으로 된 작은 뱀도 만듭니다.

당번은 오전부터 토지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야사카신사에서 준비를 합니다. 오후부터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무기를 만들고, 완성되면 5m 반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이무기는 본전 앞에 또아리를 틀고 서로 마주보며 자리잡고, 그 후 신주를 마시게 하여 음복잔치가 열립니다. 음복잔치가 끝나면 남서와 북동의 마을 경계로 가서, 도중에 이별이라고 하는 이무기의 입을 맞추게 합니다. 도착하면 지난해의 이무기를 나무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큰 이무기를 감아서 고정시킵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미상이나, 짚으로 만든 뱀의 크기가 크고, 옛 모습을 전승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귀중한 민속행사입니다.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